상자 속 낙원

PICK Mehdi Ghadyanloo 페로탕 서울

메디 가디안루 개인전 <Paradise Opens Tomorrow>(11. 5~12. 24 페로탕 서울)

2026 / 11 / 17

강우영

놀이터는 가장 작은 유토피아이면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통제의 건축이다. 미끄럼틀과 사다리는 아이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 자유는 정해진 높이와 동선 안에서만 허락된다. 이란 출신 화가 메디 가디안루(Mehdi Ghadyanloo, 1981년생)의 국내 첫 개인전 <Paradise Opens Tomorrow>는 이 양가적 공간을 응시한다. 유화와 색연필 드로잉 등 회화 19점을 공개했다.



<The Plastic Temple>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150×140cm 2025~26 페로탕 서울 제공

가디안루의 출발점은 벽이었다. 그는 2000년대 테헤란 도심에 100점이 넘는 초대형 벽화를 그리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의 공공벽화가 순교자 초상과 선전 구호로 채워졌던 것과 달리, 작가는 도심에 하늘을 열었다. 건물 외벽을 뚫고 열린 창공, 구름에 닿은 사다리, 풍선을 잡고 두둥실

떠오르는 사람들.... 회색 도시에 그려 넣은 이 '가짜 출구'는 서방의 경제 제재와 전쟁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건넸다.



<The Mutual path> 종이에 색연필 60×38.5cm 2026 페로탕 서울 제공



<The Rolling Dream>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235×130cm 2025 페로탕 서울 제공

2010년대 후반 가디안루는 캔버스로 무대를 옮긴다. 거리의 벽이 희망을 말해야 했다면, 캔버스는 그 뒤에 가려 둔 불안을 꺼내 놓는 자리였다. 이 전환은 팬데믹을 지나며 선명해졌다. 벽화 속 오브제는 밀폐된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미끄럼틀이 등장했다. 무엇보다 사람이 사라졌다. 일상의 탈출구를 가리켰던 천창은 텅 빈 놀이기구를 비추는 조명이 되었다.



<The Promised Paths> 캔버스에 유채 120×120cm 2026 페로탕 서울 제공

이번 전시에서는 이 텅 빈 놀이터에 두 요소가 새로 들어선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 동물 아바타. 분홍빛 토끼와 개, 회녹색 코끼리의 몸이 미끄럼틀, 사다리와 연결된다. 입도 표정도 없는 매끈한 형상들은 귀엽지만 몸은 굳어있다. 순수함이 상품으로 포장된 현실을 드러낸다. 두 번째는 바닥에서 차오르는 물. 발목 높이의 물만으로 놀이터는 생존을 위협하는 장소로 뒤바뀐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전쟁 중인 이란에서 준비했고, 작품은 막힌 하늘길 대신 육로로 이스탄불을 거쳐 도착했다. 전쟁은 화면 어디에도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오르는 물 앞에서 놀이와 생존, 낙원과 함정을 가르는 경계는 흔들린다.



<The Playground of Tomorrow> 캔버스에 유채 200×300cm 2025 페로탕 서울

놀이터가 약속하는 '해방'은 언제나 누군가 둘러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가디안루의 그림은 그 울타리의 정체를 묻는다. 천장에 뚫린 구멍은 바깥으로 이어진 출구일까, 아니면 더 깊이 빠져드는 수렁의 입구일까. 전시 제목 <Paradise Opens Tomorrow>는 놀이공원 입구에 걸린 안내판처럼 유쾌하다. 그러나 내일 열린다는 말은 오늘은 닫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희망 과 절망이 한 문장에 포개진 그 자리에서, 작가는 우리에게 사다리를 오를 것인지 묻는다.